

부기촌 숨은그림찾기



골목, 계단, 반집항기, 이웃의 소리,
성덕새마을협동유아원, 고양이



성덕동





성덕동 부기촌 숨은그림찾기

발행일. 2020 09

발행처.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김남옥

제작기획. 스킨

출판편집. 참깨

표지일러스트. 안상현

성덕동

개요

개설 시기/일시	1998년 10월 1일
성격	행정동
면적	11.41km ²
인구	28,748명 (2020년 8월 기준) 남자 14,194명 / 여자 14,554명
가구 수	11,862가구가구(2020년 8월 기준)

정의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행정동

개설

강릉시청의 동남쪽에 있다. 동쪽은 바다, 서쪽은 노암동, 남쪽은 강동면 상시동리와 하시동리, 북쪽은 남대천과 접해 있다. 또한 항공 교통의 요충지인 공항이 자리 잡은 강릉시의 관문 지역이다.

명칭유래

성덕동은 1920년에 성남면(城南面)과 덕방면(德方面)이 합쳐져서 생긴 이름이다.

그중에서도 부기촌(富起村)은 노암 우체국에서 강릉중학교로 들어가면서 오른쪽 마을. 옛날 이곳이 논이었는데 그 후 엄부일이라는 사람이 개인 힘으로 논을 매워 마을을 만들면서 부를 일으키는 신흥마을이란 뜻에서 마을 이름이 생겼다.

형성 및 변천

1955년 9월 1일에 강릉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성덕면에 속해 있던 입암·청량·두산·학동·병산·남향진 마을이 합병하여 입암동이 되었다.

1965년에 입암동 관할 법정동인 입암, 청량동은 행정동을 입암동으로, 입암동 관할 법정동인 두산, 학동, 병산, 남향진동은 행정동을 두산동으로 각각 분리하였다.

성덕동(城德洞)은 과소 행정동 통합에 따라 1998년 10월 1일에 강릉시 조례로 입암동·병산동·학동·남향진동·두산동·청량동을 합쳐 만든 행정동이다.



현황

2020년 8월 기준 면적은 11.41km²이고 49개 통에 284개 반으로 공무원은 19명이다. 인구는 11,862세대 28,748명(남자 14,194명, 여자 14,554명)으로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강릉시 행정동 중 교1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 농업, 어업, 공업 등 다양한 산업에 인구가 종사하고 있다.

관내에는 성덕·중앙초등학교, 강릉중학교, 강릉중앙고등학교, 강원도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강릉보육원 등이 있다.

출처: 디지털강릉문화대전(<http://gangneung.grandculture.net>)



부기촌 도시재생사업

2016년부터 강릉시는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16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부기촌(성덕동 1~4통) 일원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벌였다.

부기촌(성덕동 1~4통)은 '15년도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주문진 등대지구와 마찬가지로 강릉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며 협소한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이 79%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또한 당시 각종 재난 상황(화재 및 산사태 등)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불가한 지역으로 생활 인프라 시설개선이 시급하고 거주민 25.5%가 고령인구(65세 이상)일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계층과 같은 경제적 소외계층이 많아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었다. 위 사업으로 재해 예방시설 및 급경사지 개선 등의 안전 확보, 마을간 연결다리,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한 생활 인프라 개선, 집수리와 지붕개량을 포함한 주택 정비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등 사업 이후 자활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도 도움을 주었다.

출처: 강릉시청 보도자료(<https://www.gn.go.kr>)

골목이 된 계단 이야기

글 송성진

힘겹게 올라가는 삶이지만 그 속은 시외도록 아름답기를...



북으로 입암1주공아파트, 동쪽에 입암현대아파트, 남으로는 더샵아파트가, 서쪽에는 노암현대아파트와 양우내안에아파트가 병풍을 친 듯이 둘러싸인 마을이 있다. 예전 논이었던 곳을 엄부일이라는 사람이 마을을 만들어 부를 일으켰다하여 붙여진 이름 부기촌. 300여 호 남짓의 집들이 지붕과 지붕을 맞대고 세워진 작은 산동네 마을이다.

부기촌은 골목과 골목 사이,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는 계단이 많다. 주위에 자리 잡은 화려한 아파트 브랜드와 상반되어 지금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부기촌도 부가 일어났던 살기 좋은 마을이었으리라. 흥했던 세월을 기억하듯 계단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래서일까? 강릉의 근대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간이 멈춘 마을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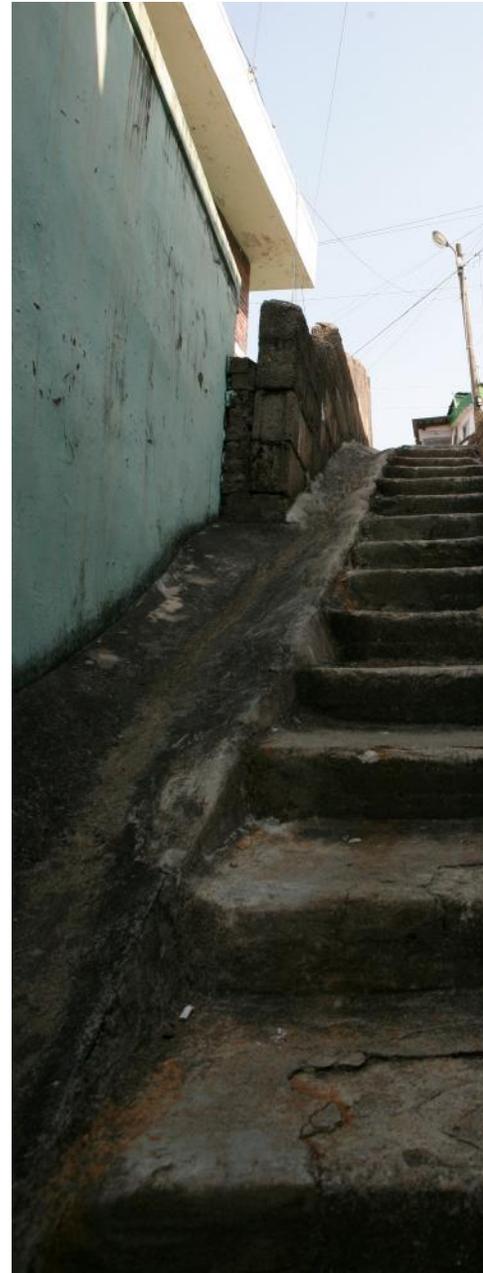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계단을 통해야만 집으로 갈 수 있다. 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연세가 지긋한 주민이 계단을 딛는다.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 삶의 무게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 사이로 지붕이 내려앉았다. 언덕을 따라 마을을 만들고 좁은 공간을 나눠 집을 짓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계단이 많다는 것. 걸음에 가쁜 숨을 동반하지만 차가 다니지 못하는 보행 친화적인 길로 느껴진다. 걸으며 만나는 이웃 주민과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하는 장면도 상상해본다. 마침 골목 사이에 앉아 있는 어르신을 발견하며 이동통로를 넘어선 거대한 벤치라는 생각도 든다. 위와 아래로 나뉘지는 격이 아닌 평등함과 공유를 연결하는 통로로의 역할을 계단이 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속의 명장면들을 상상해 본다, 영화 ‘조커’의 미국 뉴욕 브롱크스 웨스트 167번가 계단에서 자아를 가감 없이 드러내던 조커나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속삭인 스페인 계단. 그리고 국민배우 안성기가 나온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소나기 내리는 부산중앙동 40계단처럼 처절함도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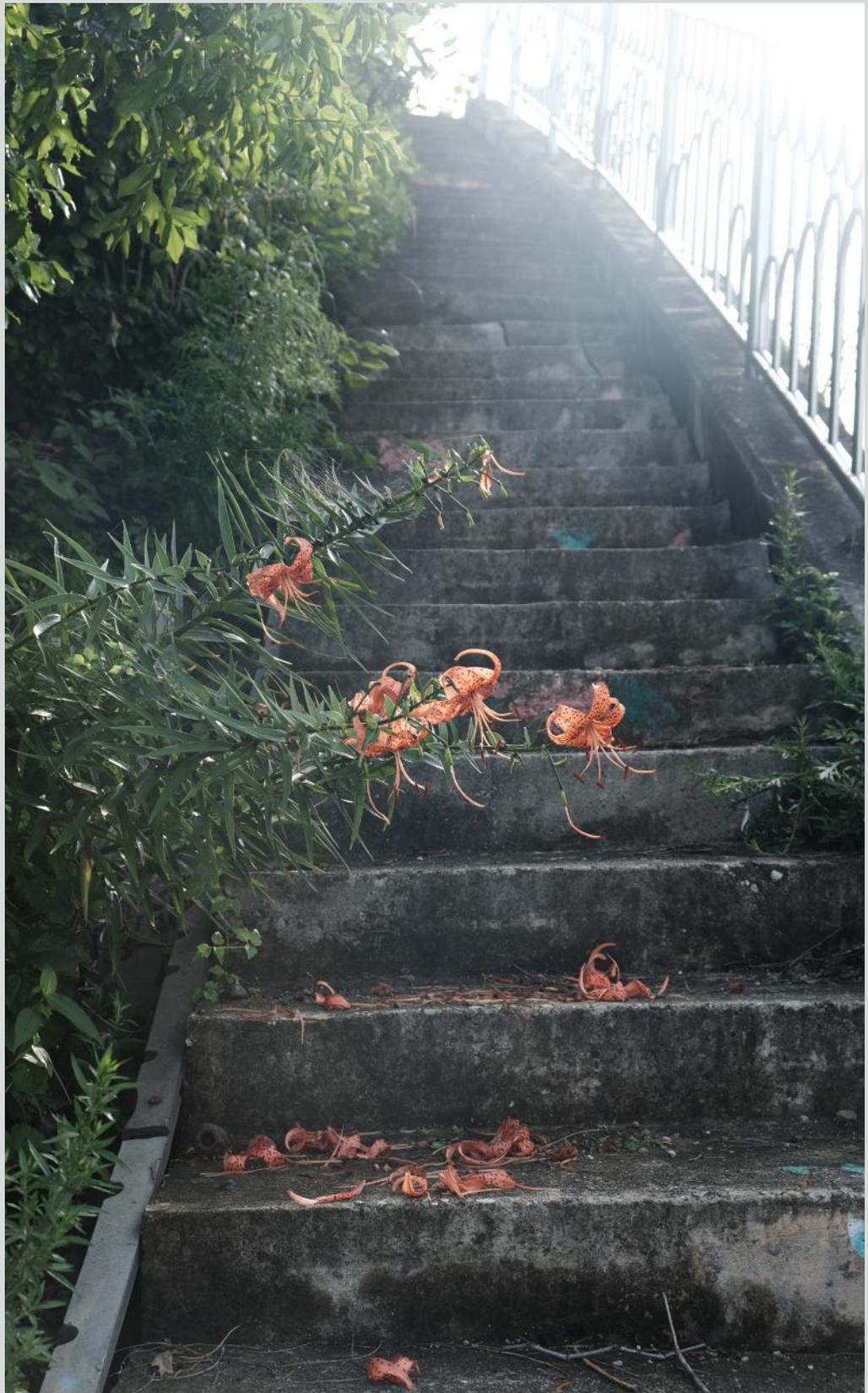
부기촌의 명장소를 기대한다. 주민들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동권 확보와 소통 공간으로의 역할을 지속하는 장소로 계단을 활용하길 바란다. ▲





그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지
어디 평지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빈집’에는 어떤 향기가 날까?

글 심규동

부기촌을 걷다 보면 빈집에 사로잡힌다. 작은 골목 길을 따라 계단을 오르고 여러 대문 앞을 지나가면 누군가의 앞마당까지 들어온 느낌이 들어 고양이 발 걸음을 하게 된다. 그러다 덩굴 친 빈집을 마주하게 되면 거침없이 담장 너머로 빈집을 둘러본다. 부기촌의 빈집은 누군가의 공간에서 이탈한 것만 같은 이질감을 준다. 그 느낌이 나쁘지만은 않다. 나는 그렇게 부기촌의 빈집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빈집은 나에게 사진을 허락했다. (고 나는 생각했다) 막연히 사진을 찍고 싶은 특별한 본능을 가진 나에게 빈집은 초상권, 저작권에서 자유로웠다. 사진이라는 사각 프레임 안에 빈집을 조형적으로 구겨 넣었다. 사진 속 빈집은 어딘가 모르게 예뻐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실은 빈집보다 폐허라는 단어가 더 정확해 보였다. 사실을 미화시킨다고 종종 혼나는 사진가 입장에서 또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게 아닐까 고민해보지만, 이것은 특별한 본능이 아니라 누구나 조형미를 추구하는 본능이지 않을까.





카메라를 들고 부기촌을 서너 바퀴 돌았을 때, 정자에 모여 있는 할머니들 중 한 분이 ‘거 뭐 찍으려 다니는 거예요?’라고 말을 걸어 주셨다.

“저 여기 빈집이 많아서 사진 찍고 있어요.”

“빈집을 왜 찍어요?”

나는 살짝 ‘그러게 내가 왜 빈집을 찍을까?’ 고민하고 대충

“빈집에 넝쿨이 올라가고 오래된 느낌이 멋져서요.”

옆에 계시던 다른 할머니가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그런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잘 찍어서 어디 올려서 사러 오게 해봐요.”

“빈집에 새로 이사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한마디씩 거들면서

“그럼 그럼” “빈집이 너무 많아” “빈집에 쓰레기도 맨 없고, 냄새나고” “누가 오면 좋지”

그렇다. 이방인인 나에게나 매력적인 빈집이었지, 부기촌 주민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

부기촌에는 어찌다 이렇게 많은 빈집이 생겼을까? 도시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전성기를 지낸 후, 쇠퇴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들은 적 있다. 그럼 부기촌은 쇠퇴하는 단계이지 싶다. 더 나은 동네로 이사하며 생긴 공실, 그리고 임대되지 않고 노후화된 공실이 부기촌의 빈집이 되고 있다.





정자에 모여 계신 할머니들마저 자연스럽게 떠나고 부기촌의 대부분의 집이 비어있는 무서운 상상을 해본다. 더 나아가 인구 절벽이 예정된 우리나라는 이런 빈집이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니 부엌에서 맛있는 저녁밥 냄새가 풍겼다. 노트북에 사진을 옮기며 빈집에는 무슨 향기가 날지 생각했다. 지금 사는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덩굴이 올라가고 쓰레기가 쌓이면, 나는 엄마가 해준 밥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을까. 분명 밥 냄새 말고도 장마철 거실에 말리던 빨간 고추 냄새, 가을에 마당에 떨어져 터진 홍시 냄새, 옷 방 냄새, 신발장 냄새, 내 방에 익숙한 냄새까지 모두 다 기분 좋게 맡을 것 같다. 우리 집처럼 빈집도 처음부터 빈집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추억의 공간이었겠지.’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 속 빈집에서 가끔 꽃향기가 났다. ▲





무슨 반찬 해 잡 쉬?

너무 너무 맛있는 거 해먹지

아들은 반찬 이런거 안 가려?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괜찮아

아들이 있으니 밥하기 싫어도 해야지



성덕 새마을 협동유아원을 아시나요?

글 송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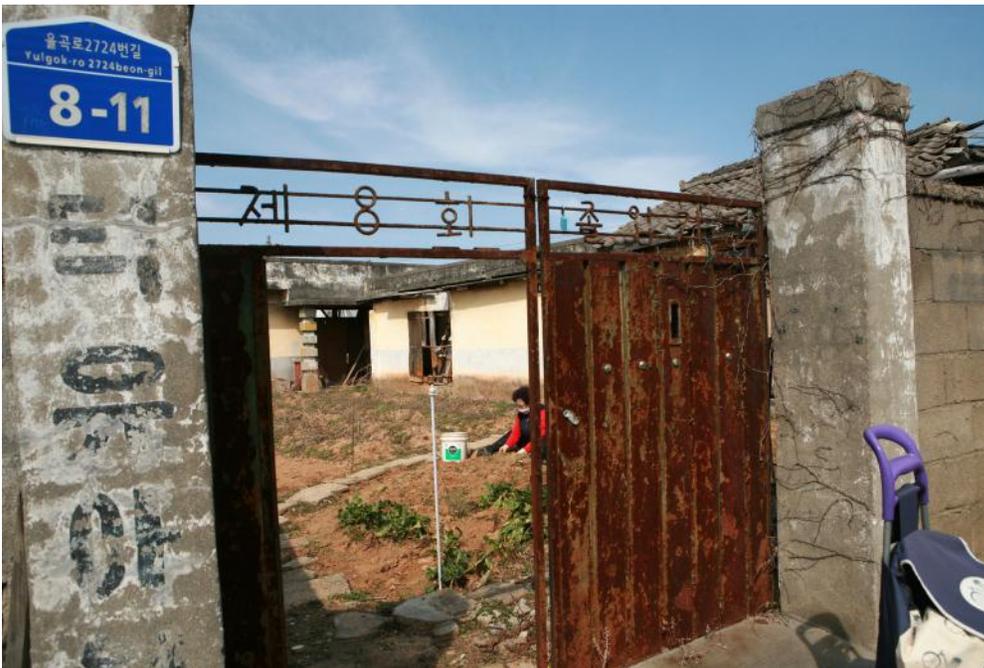
강릉 시내 쪽으로 떨어지는 낙조의 아름다움을 한껏 감상할 수 있고 밤에는 부기촌 마을의 가로등 불빛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노암동과 성덕동의 경계인 울곡로가 내려다보이는 부기촌의 가장 높은 곳에 성덕 새마을 협동유아원이 있다.

1980년대 학교를 다닌 나도 새마을 유아원이란 이름이 생소하게 들린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재정되면서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탁아시설이 사립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고 한다. 이후 1992년 맞벌이부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육부에서 새마을 유아원을 다시 유치원과 탁아소로 분리하는 정책을 시도해 지금의 어린이집 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성덕 새마을 협동유아원도 이 시기에 문을 닫으며 성덕동 부기촌의 아이들 소리도 함께 사라졌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변 주민들의 기억에 의하면 90년대 초반에 문을 닫은 걸로 추정된다. 원생이 한창 많을 때는 200여명 가량 되었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당시 부기촌의 활기찬 모습이 그려진다.

아이들이 떠난 마당에 텃밭을 가꾸는 주민들이 보인다. 허물어져 형태를 겨우 유지하는 지붕과 8회 졸업생들이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녹슨 빨간 대문이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





아이를 셋 이상씩 낳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일터로 향하는 움직임을 장려하던 때에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유아원은 필수였다. 7~80년대 산업발전의 산물처럼 지금은 비어 있지만 같은 동네 옆집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내주고 싶어 탁 트인 이곳에 유아원을 짓지 않았을까 상상해본다.

유아원 옆으로도 비슷한 형태의 집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다. 모두 비어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집들도 두 집만 할머니들이 외롭게 사시고 있어 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도시재생은 각자의 시기가 다를 뿐 어느 지역이나 적용할 수 있다. 부기촌에도 도시재생이 다가온다면 새마을 협동유아원 이곳에 거점공간을 두어 아름다운 마을을 조망하는 곳이 되길 기원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와 부기촌 마을 이름처럼 마음이 부유한 마을이 되길 바라며. ▲





과도 약을 쳐야해

이파구막 벌거지 꺼

진부가면 아주 파밭에 약냄새가 계속 난대

깨도 약을 쳐야해

안치면 벌레 다먹어요

꽃필 때 그때 쳐야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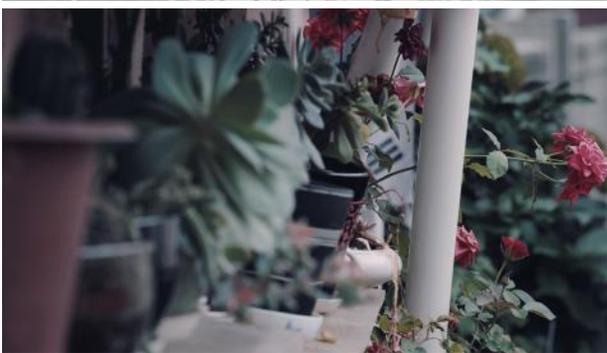






그래도 이래 나와 가지고 대화를 하고 가야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 안되잖아





성덕동 부기촌 숨은그림찾기 2020. 영상 스틸컷
기획. 문화그룹 스킨
제작. 빛나는 날들
제작지원.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강릉시 임영로155번길 6 (서부시장) 2층 57호

<http://www.gursc.org> T.033-642-3995 F.033-643-3996

Copyright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9 791197 020643
ISBN 979-11-970206-4-3